

총학생회 공식 이번엔 채워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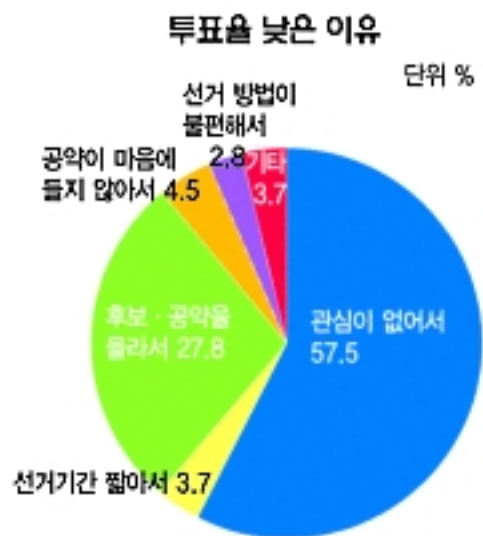
선거 무관심을 극복할 대안 필요해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대학 총학생회 투표율은 이미 대학가의 '불행한' 대세다.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07년 23대 총학생회 선거는 총 재적인원 6천2십여명 중 3천8백9십여명이 참여해 64%의 투표율이 나왔고 이듬해에는 51.84%가 나왔다. 2009년 첫 총학생회 선거에선 총 9천1백7십여명 중 단 1천8백9십여명이 투표해 30.64%라는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26대 총학생회를 꾸리기 위해 지난 해 진행된 선거 역시 다르지 않았다.

11월 16, 17일에 진행된 선거는 총 재적인원 6천1백2십여명 중 2,466명(40.25%)가 투표해 재선거로 넘어갔다. 재선거는 12월 7, 8일 양일간 이루어졌고 41.64%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결국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 총학생회는 공석이다. 인문대를 제외한 각 단과대 학생회들도 후보 미등록으로 인해 보결선거로 넘어왔다.

본지가 교내 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심이 없어서'가 122(57.5%)의 표를 받았다. 후보와 공약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학생회에 대한 불신(68명, 32.3%), 짧은



선거기간(8명, 3.7%)도 각각 표를 얻었다. 실제 지난 해 단선으로 이루어진 총학생회 선거는 단 이틀간 이루어진 데다 시험기간이었다. 또 말뿐인 공약에 회의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았다. 익명을 요청한 경영학부 3학년 재학생인 한 학생은 "처음에 내긴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공약을 내걸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위가람(컴공 3)학생은 "학생들은 학생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직접 와 달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투표율을 높일 방안에 대해 본지가



2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항은 82명(35.1%)의 찬성을 얻은 전자투표, 모바일 투표 등 새로운 투표 방법의 도입이었다. 이는 실제 속명여대, 숭실대 등 타 대학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숭실대는 현재 기존 종이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학번과 이름을 치면 나오는 인증번호를 통해 서버에 접속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속명여대는 인터넷을 사용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속명여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 되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니 접근성이 좋고 이는 투표율 증가로 이어진다. 단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생기면 곧 개인정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할 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총학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투표의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실세용(산공 4)총대의장은 "투표를 위한 인터넷 구축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며 학교와 논의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그는 과반수가 넘어야 당선 가능한 현 개표율을 조정하는 것, 4학년을 투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개표율을 과반수 이하로 낮추는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꿈을 낮추는 것이다. 한성대를 발전시키려는 포부를 가진 후보자가 나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학생회 투표율 뿐 아니라 동아리 등 학생기구 자체의 참여율이 함께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예전과 달리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걱정하는 학교와 사회 이슈에 대해 개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투표가 나와 관계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보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학생회 선거 참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스승과 제자 간 새로운 인연의 시작" 지난 2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0학년도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한성 학연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학과장은 신입생에게 학습노트를 전달했고 학생은 교수에게 꽃을 전달하는 식을 진행했다. 이성미 기자

눈에 보이는 성취감, 경력개발 마일리지

지난 학기보다 평점 오르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

100포인트가 누적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학제정학제도 가이벤트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적, 즉 평점 또는 외국어 점수가 오르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 포인트는 장학금으로 돌아온다.

이 경력개발 마일리지 장학제도는 각각 ▲성적점프 ▲외국어점수 향상 ▲취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구분된다. 성적 점프는 직전학기 자신의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1.0 이상 오르면 단계별로 작년 2학기보다 올해 1학기 평점이 1.0-1.5점 향상 시 20포인트, 1.5-2.0

점 향상 시 40포인트, 2.0이상 향상 시에는 60포인트를 받는 식이다. 외국어 점수 향상에 해당되는 시험은 토익, 토플, 텡스, JPT, HSK로 6개월 이내 일정 점수가 오르면 역시 포인트를 받는다.

교내에서 실시하는 취업 특강을 들 때는 시간 당 1포인트, 학교에서 인정하는 국내 인턴십에 참여하면 1개월에 10포인트가 주어진다. 국내봉사 역시 시간별로 나뉘어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1천원

전민우(학생지원팀)팀원은 "경력 마일리지 제도는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장학제도다. 또 적은 액수지만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취업능력 향상에 해당되는 국내 봉사는 대가가 따르지 않는 순수한 개인 봉사만 가능하며 해외봉사단 등 다른 봉사 프로그램과 중복될 수 없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시행된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26대 총학생회선거 두 번 부결로 재선거 실시

오는 23일~24일, 양일 간 투표

이번 26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선거는 경선으로 기호 1번 '소통' 선거 운동본부(이희선 선)의 장호철(경영 4)정학생회장 · 김진현(산공 3)부학생회장 후보가 기호 2번 '동심' 선거 운동본부의 이남희(법학 4)정학생회장 · 김인승(경제 3)부학생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소통' 선본의 장호철 정 후보는 "학교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생회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학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남희 정 후보는 "지난 경선, 단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두 번이나 부결 되었지만, 학생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출마하

게 되었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두 선거운동본부의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 무엇일까. 장호철 '소통' 선본 정학생회장 후보는 "2년동안 등록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내년의 등록금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며 "올해부터 미리 등록은 인상을 막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육훈련지원금 사용계획 확대, 주차료요금할인 쿠폰제 실시, 강의실 · 세미나실 · 휴식공간 확충 등의 공약을 걸었다.

이남희 '동심' 선본 정학생회장 후보는 "총학생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무엇보다도 학교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나의

제일 큰 공약"이라고 말했다.

총학선거는 3월 13일(토)~22일(월) 유세기간을 거쳐 23일, 24일 양일간 미래관 앞, 탐구관 로비, 우촌과과와 진리관 사이, 공학관 로비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단대별 선거는 예대와 공대가 단일 후보로 출마한다. 예대는 김현중(인테리 4)정학생회장 · 최윤정(사과 4)

부학생회장 후보가 공대는 김용중(정통 4)정학생회장 · 김성일(정치 3)부학생회장 후보가 출마하며 투표는 총학선거일과 동일하다.

사과대 학생회 선거는 3월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5~22일 유세기간을 거쳐 23일 24일 양일간 투표일정을 갖는다.

김명희 기자 kmh77@hansung.ac.kr

학과	선거일	후보 및 당선자
인문대학	영어영문 3.16~17	우정균, 정유태, 임이현(후)
사과대학	경영 3.23~24	진계성, 황보연
예수대학	인테리어 3.23~24	김현중, 최윤정
공과대학	정통 3.11~12	김태성, 윤상진, 신형철(당)
	기계 3.18~19	임준, 김지훈(후)
	컴공 3.18~19	이명복, 김형철(후)

동연, 동아리 박람회 개최

'동아리 방을 두드려주세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교내 캠퍼스에서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되었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총 44개의 정동아리에서 13개의 동아리가 참가해 공연 및 각종 시연을 하거나 전단지 등을 나누어주는 등 신입생을 위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만화동아리 매나니로는 미래관 앞에서 부스를 만들어 작년 대동제 때 선보인 그림을 전시하고, 방학중에 그린 그림을 모아 회지를 만들어

신입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록교 동아리 JOY 선교회는 창의관 앞에서 부스를 만들어 솜사탕을 나누어 주며 신입생들을 홍보하고, 야구 동아리 TURTLES(터틀스)는 투구 구수축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했다. 터틀스 동아리 회원 이은민(산공 3)학생은 "구수 축정을 통해 남자 100km/h, 여자는 50km/h 기준으로 신입생을 받고 있다"며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댄스동아

리 NOD, 기록교 동아리 CCC, 문학 동아리 이무기, 클래식 기타동아리 등도 동아리 특성에 맞게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참여했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회장 성스런(기계 3)씨는 이번 동아리 박람회 대해 "동아리 참여율이 낮아서 박람회 단지 얹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kmh77@hansung.ac.kr

한성대신문은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모집대상: 한성대학교 10학번 모집

*혜택: 소정의 활동비와 원고료 지급

*문의: 02)760-4186, 010-2847-8765

*위치: 중문앞 우체국 건물 2층

*접수방법: 직접 방문 후 원서접수

*기간: 3월 29일(월)까지

우리대학 기숙사 수용을 한 자리수에 그쳐

지방 학생들을 위한 배려 필요해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서울 사립대학(4년제) 평균(16.9%)에도 못 미치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는 학생 복지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는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우리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 실수는 44개이고 재학생 7천27명 중 104명의 학생을 수용했다. 2010년 현재 신입생과 재학생을 모두 포함해 주택 기숙사엔 남녀 각각 18명, 37명이, 푸르지오 아파트 기숙사에는 남녀 각각 9명, 총 73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대학 기숙사의 한 학기 비용은 학기 당 평균 80만원 이상(4인실 기준)을 지불해야 하는 타 학교에 비해 40~60만원 정도로 부담이 적다. 기숙사 외의 다른 거주 형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시텔은 한 달에 40만원을 호가하며 자취는 보증금만

5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 기숙사생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도 가격이 싼 편이라 기숙사를 선호하지만 혹시 탈락될까봐 늘 걱정스럽다"며 "기숙사 규모를 늘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 들어올 때 무엇보다 걱정된 것은 기숙사 배정 여부였다. 만약 기숙사에 떨어지면 한 학기동안 비싼 생활비와 방값을 감수하며 자취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아파트 기숙사를 매입하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은 2008년 2.2%, 2009년 1.5%로 타 대학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다.

재학생 수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타 대학은 13.1%(서강대, 9천4백11명 중 1천2백33명), 25.5%(명지대 서울 캠퍼스, 7천6백86명 중 1천9백57명)

우리대학 기숙사 수용현황

연도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	학생 1인당 기숙사비
2008	56	100	4,470	2.2	436
2009	44	104	7,027	1.5	439

서강대 기숙사 수용현황

연도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	학생 1인당 기숙사비
2008	88	336	9,241	3.6	553
2009	533	1,230	9,411	13.1	737

한국외대 기숙사 수용현황

연도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	학생 1인당 기숙사비
2008	323	712	9,431	7.5	985
2009	323	712	10,100	7	900

명지대 기숙사 수용현황

연도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	학생 1인당 기숙사비
2008	578	1860	7681	24.2	445
2009	580	1957	7686	25.5	591

의 기숙사 수용률을 유지하며 매년 더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 각 대학정보공시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2008년 기부금 3억1천1백6십만3천원 들어와

우리학교 서울 소재 사립 대학 기부금 규모 31위

우리학교의 2008학년도 기부금(대 학공시 참조)이 3억1천1백6십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소재 사립 대학 38곳의 평균 기부금 1백0십4억6천6백5십3만6천450원의 2.97%에 달하는 금액이며, 전국 사립 대학 178곳의 평균 기부금 6십억8백7십3만2천7백2원의 5.18%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결과 서울 소재 사립 대학 38곳 중(제2캠퍼스 포함 대학 4곳)

우리대학의 기부금 순위는 31위로 다른 서울 소재의 사립 대학에 비해 기부금 문화가 아직까진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사립 대학 기부금 조사에서 기부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성균관 대학교다. 성균관대학교는 1천1백9십4억1천4백1십4만4천원으로 우리 대학의 기부금이 성균관대학교의 0.26%에 해당하며 1천1백9십1억2백4십8만1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학교의 뒤를 이은 대학은 32위 서울기독대학교(3억6백1십7만9천 원), 33위 그리스도대학교(2억6천1백8십2만7천 원), 34위 추계예술대학교(6천5백6십4만6천 원)으로 조사됐다. 35위~38위의 대학의 경우 제2캠퍼스(제2캠퍼스 기부금 0원)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순위는 34위까지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와 비슷한 규모(1만 명~1만5천 명의 학생이 다니는 네 개의 사립 대학 서강대학교(5십억9천 1백5십1만5천 원), 성신여자대학교(2 십8억3천3백6십7만7천 원), 숙명여자

대학교(5십7억1천3백5십만2천 원), 광운대학교(2백6십3억9천6백4십5만1천 원)와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성학 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은 "이번 8월 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한성대에 기탁했다. 그는 "이번 발전기금 1억 원을 시작으로 총동문회 앞장서서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한성대 연수원 건축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취재부)

처장단 등 보직인사 발령

지난 2월 28일자로 아래와 같이 새로운 보직교원 임명이 이루어졌다. ▲교무처장 박영범(경제학부)교수 ▲기획협력처장 박명환(산업경영공학부)교수 ▲학생지원처장 및 성희롱·성폭력근절및양성평등등상담소장 박단(역사문화학부)교수 ▲총무처장 유병호(무역학부)교수 ▲입학홍보처장 방갑신(정보시스템공학부)교수 ▲인문대학장 조인숙(지식정보학부)교수 ▲사회과학대학장 홍용식(경영학부)교수 ▲예술대학장 최해주(매스미디어)교수 ▲공과대학장 및 공학교육개발센터장 정병용(산업경영공학부)교수 ▲학술정보관장 박호영(한국어문학부)교수 ▲전자계산소장 호영춘(정보통신공학부)교수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장 이상원(에너지공·제 품디자인전공)교수 ▲대학원장 김원

중(경영학부)교수 ▲행정대학원장 김백유(행정학과)교수 ▲예술대학원장 조태병(시각·영상디자인전공)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대학원장 정진택(행정학과)교수 ▲교육대학원장 권오(무역학과)교수 ▲부동산대학원장 권혜수(행정학과)교수

또 3월 1일자로 ▲영어영문학부장 서영운(영어영문학부)교수 ▲회화과장 이인현(시각·영상디자인전공)교수 ▲공학교육개발센터 혁신위원장 이재득(산업경영공학부)교수 ▲공학교육개발센터 학과프로그램 PD 조세홍(멀티미디어공학부)교수 ▲공학교육개발센터 학과프로그램 PD 강희중(컴퓨터공학부)교수 ▲영미문화학과 및 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서영운(영어영문학부)교수 ▲회화과 주임교수 이인현(회화과)교수가 임명됐다.

(취재부)

일부 야간 학생 IBT 수강신청에 문제

'중요한 사항 미리 공지 안 돼 당황'

지난 달 IBT English 수강신청 기간(2월18일~19일)에 전산처리에 문제가 생겨 많은 야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학교에 직접 찾아오는 불편을 겪었다.

수강신청 사이트에 야간 본반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야간 학생들은 예정된 기간에 IBT English 수강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일에 대해 학사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한 야간 학생들은 수강신청 당일 혹은 수강신청이 끝난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 야간학생은 "개인적인 일정상

학교에 바로 갈 수 없었다. 미리 공지된 사항도 아니라 더욱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었다. 또 다른 한 야간학생은 "수강신청날에 학교에 가지 못해 다음날 신청하려고 방문했지만 원하는 강의는 이미 정원이 차 들어 수 없다고 했다. 유명하다고 소문난 강사의 강의라 꼭 듣고 싶었는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에 학사지원팀 측은 "단순착오였다. 담당 조교의 실수로 야간 본반이 누락되었고 이를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기 전까지 발견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번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주·야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원의 반을 야간 학생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IBT수강신청에 관련한 한 관계자는 "주·야간이 정원의 절반씩 수강신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불이익은 거의 없다. 원하는 강의를 들지 못한 학생은 소수일 뿐 실제로 개설된 대부분의 강좌에 아직 충분히 자리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실수였을 뿐 야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수강신청 시 이런 부분 아쉬워요

능장 피우는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는 강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강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강의계획서가 수강 신청 전까지 올라 오지 않아 학생들은 강의 선택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번 1학기 강의 계획서는 수강신청기간(2월16일~27일)전인 2월 12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지만, 그 전까지 강의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과목들이 있어 학생들의 강의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심지어 몇 개의 강의는 강의계획서가 개강 후에도 올라오지 않아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강의계획서의 미비에는 '강사의 부재'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강사가 시간과 함께 강의계획서를 본 다음에 강의를 신청한다. 하지만 (수강 신청할 때)강의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아 강의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한 채 수강신청을 할 때가 있다.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전에 미리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만(학사지원팀) 팀장은 "강의 계획서가 올라오도록 전 학부·과·

전공에 공문을 내리고, 개별적으로 교수들에게 강의계획서를 올려달라고 요청한다."며 "이번의 경우에도 1월 25일에 전 학부/과/전공으로 공문을 내렸고, 2차적으로 2월 24일에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사지원팀은 올라오지 않은 강의계획서에 대한 강제 항목이 없어 담당부서의 이런 노력과는 별개로 교수와 강사가 강의계획서를 올릴 때 까지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늦춰진 강의계획서에 대한 학교의 강제 조치나 권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강의계획서의 미비에는 '강사 과목 교수들은 (강의계획서를) 올릴 때 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설의가 끝난 다음에 사정이 생겨 다른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 새로운 강의를 맡을 담당자를 찾다보니 이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강의 설의의 번수를 설명했다.

정영만 팀장은 "12월 회의를 거쳐 3월 개강 시간표가 나온 후 각 과에

12월 말까지 강사의 임용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지만 각 과에서 강사를 설의하는 일에 여러 사정이 있어 늦게 시간강사가 설의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 강사도 강의계획서를 올려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급하게 설의된 상황에서 기간 내 강의계획서를 올리는 일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주(경영학부) 학과장은 "각 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설의가 끝난 다음에 사정이 생겨 다른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 새로운 강의를 맡을 담당자를 찾다보니 이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강의 설의의 번수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원(컴공 3) 학생은 "전공 과목 교수들은 (강의계획서를) 올릴 때는 거 같은데 교양과목은 (강의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올라간 강의계획서를 보고 수업에 들어가 보면 강의계획서와 다른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며 충실한 강의계획서를 보길 원했다.

(취재부)

아직 전공서적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학복위로 가라!

지난 8월부터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 실시하는 책 베풀기 행사 'Gee마켓'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Gee마켓은 팔고 싶은 책을 학복위를 통해 팔기엔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의 베풀기 시장이다.

Gee마켓을 담당하는 이윤근(산공 2)학생은 "학우들에게 전공서적 부담비를 줄여주기 위해 Gee마켓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Gee마켓 시즌 1이 처음으로 열렸지만 개강 때와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학생들의 반응이 저조했다"며 "이번

에 다행히 판매시기와 개강시기를 맞아 지난 학기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메아리(이하 나눔)에서 공지된 Gee마켓 행사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다음 학기에는 나눔 외에 자보를 붙이는 등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힘 쓸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신청된 책은 총 94권(12월 오후 9시 현재)으로 그 중 15권이 판매되었다. 이 책들은 학복위에서 3월 19일까지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한성대신문사 웹소식지 및 홈페이지 객원기자 모집

- 모집분야: 한성대신문사 웹소식지 및 홈페이지 객원기자
- 모집인원: 1명
- 모집자격: 웹에디터(나모웹에디터, 드림위버 등 포함) 가능자, 이미지 툴(포토샵 등) 가능자 우대
- 근무형태: 자택근무
- 보수형태: 초기 웹소식지 제작비 지급 및 호별 제작비 지급(협의 필요)
- 모집기간: 지원접수 - 2010년 3월 2일 ~ 31일(수)
- 면 접 - 2010. 4. 1.(목)
- 발 표 - 2010. 4. 2.(금)
- 접 수 처 - press@hansung.ac.kr

※지원서 첨부
한성대 신문사(http://news.hansung.ac.kr)공지사항 참고

언론사 사회 비판과 감시 잘하고 있나

“제 역할을 위해선 재벌과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언론은 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과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정계와 재계의 눈치를 보며 사회 비판 및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광고로 인한 재계의 자금 압박, 정치권의 정치 권력 압박 등으로 각 언론사는 숨을 죽이고 몸을 사리는데 급급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대표하는 신문사를 들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보로 한계라, 경향신문을 꼽고 보수 세력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를 든다. 하지만 현재의 조중동을 보면 보수 신문이라기 보단 친 정부, 친 재벌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회 이하 민언련) 대외협력부장은 “흔히 사람들은 조중동을 보수 신문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성향을 보면 보수 세력이라 말할 수 없다.”며 “이들은 시장주의적, 친 재벌적 경향을 보이며 일방주의의 방향이 큰 것 같다”고 조중동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조중동의 신문은 보면 무상급식, 종부세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친 재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조영수 대외협력부장은 “조중동에서는 무상급식, 종부세 등의 제도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매도하고 있다. 이는 조중동이 친 재벌 성향의 1%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며 “무상급식과 종부세를 시행하면 1%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만, 국민 99%의 사람들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조중동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조중동의 친재벌 성향을 비판했다.



▲ 지난 3월 5일 MBC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 현장 모습.

이렇게 신문사가 제대로된 비판 기능을 잃고 재계를 돕는 이유는 ‘광고’ 때문이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광고비로 돈을 버는 신문사로서는 재계로부터 나오는 광고는 신문사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재계에 광고가 없이는 운영이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방송국의 경우 KBS 사장 교체와 더불어 MBC 임기영 사장 사퇴가 발생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조영수 대외협력부장은 “지금까지 방문 이사진이 MBC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결국 이번 김우용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친 이명박 정부의 사람으로 MBC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면서 결국 임기영 사장에게 간접적으로 퇴진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며 “이번 MBC 신임

김재철 사장이 보도와 정책 보도의 인사에 대해 방분 이사와 갈등을 보인 것도 방분진을 뒤에서 조종하는 정권의 의중이 작용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방송국과 신문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재계의 자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시청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뒤 짊어지게 된다.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사회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은 그 분야의 문제를 모르고 지나치고 이로 인해 몇몇의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주로 보는 매체 한 곳의 기사만 보고 그 매체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높다. 조영수 대외협력부장은 “학생들은 언론을 애초부터 불신하



▲ 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

지 말아야겠지만 굳이 굳대로 믿을 수 있는 매체라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을 깨야 한다”며 “인터넷 언론이나 각종 잡지를 통해 얻은 정보는 그 정보가 옳은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찾아본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즉 언론매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마냥 진실 이다란 생각은 잘못됐으며 언론사를 추앙하는 일을 버리지 않으면 사회를 보는 시선에 한계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각각의 매체는 그 사안을 놓고 자신의 매체에 맞는 정략적인 정보를 넣는다. 신문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고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사를 다르게 생각해 보기도 하며 다른 쪽 주장을 접해가며 언론을 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In the field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 여성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퍼포먼스 중에 ‘여성이 만드는 평등’을 외치고 있다.

지난 6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10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주최로 한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람들과 일반 여성 노동자를 비롯해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여성의 인권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 정책 반대! 여성의 권력쟁취!’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의 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강연을 이어갔다.

한 대학생 참가자는 “여성이 사회로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경제위기로 여대생들의 꿈은 ‘좋은 가정’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사회에선 여성들의 자기개발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도 출신, 육아로 인해 각종 차별의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말했다.

또한 한 회사원 참가자는 “한국인은 미혼 모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부정적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여성에 반(反)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며 부득이하게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낙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단속강화를 시행하는 현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 제도는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 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이다.

하지만 여성회 회원 참가자는 “여성들은 출산 후 다시 노동을 하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 불안정한 일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여성에게 가장과 일 두 가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강요로 비추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nansung.ac.kr

사회문제로 통하다

전지구화하는 빈곤의 공포

빈부격차 문제가 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원리는 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자본가계급은 최대한의 과잉축적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빈부격차 확대에 기여한다. 그렇게 하면 생산과정에서 더 많은 잉여가치, 즉 이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최고의 방법은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노동자끼리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신입예비군’, 즉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위협한 수준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양산하고 유지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체제를 창출하고 연이은 임금 감소를 실현한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청년 실업, 명예퇴직 등 우리가 익히 들어왔을 문제들은 사실 자본의 과잉축적이란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던 셈이다.

그러하여 자본 회전의 맷돌에서 찌부러지고 핏겨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런 궁핍화와 빈곤의 메커니즘은 18세기 유럽에서나, 21세기 한국에서나 대응소이다. 다수

의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즉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여 절망적인 삶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게다가 빈곤이라는 현실 자체가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경쟁을 유인함으로써 축적의 기반 중 일부가 된다는 사

“지금의 20대는 88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쪽방에서 살아가는 신빈곤층이 될 가능성 높다”

실 또한 그러하다.

물론 최근 한국사회의 국민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빈곤문제에 있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중에서도 신빈곤(new poverty) 현상은 물질적 조건의 부족으로 인한 절대 빈곤이 줄어든 대신에 비물질적 조건의 결여로 인한 상대 빈곤이 늘어난 문제를 의미한다. 도시락이 없어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는 굶주림과, 또래 중에서 유일하게 핸드폰이 없어 의기소침한 것 사이에서 감정

적으로 우열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런 까닭에, 오늘날에는 19세기나 20세기와는 달리 그러한 궁핍화에 대항하려는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흐름이 눈에 띄지 않는다. 달리 말해 사회운동의 전망은 지금이 불투명하다. 예전

에는 빈곤선의 경계에 선 민중들의 봉기로 최소한으로는 사회보장을 최대한으로는 사회변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운동의 조직화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처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운동의 부재 상황은 빈곤의 항상성에 비했을 때는 역설이지만, 상대 빈곤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비했을 때는 순리일지도 모른다. 절대 빈곤이 봉기적 요구를 파생시켰다면 상대 빈곤은 사회적 요구 수준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각을 넓혀 지구촌 전체를 조망해보도록 하자.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있다는 선언은 과연 옳은 것일까. 국내적으로는 옳은 언사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절대 빈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빈곤이 자본가계급의 비만을 유지시켰던 것처럼, 그들의 빈곤은 우리의 축적을 돕는다. 그리하여 빈곤 문제의 최종적점은 매우 불길하다. 국내적으로 절대 빈곤 감소에도 불구하고 빈곤 ‘감’은 사라지지 않은 채 발목을 붙잡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굶어 죽는 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역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상존하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운동에 대한 공포가 더 큰 역설적 상황 말이다. 파국이라는 말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대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파국을 목전에 둔 채, 전지구적 상층회로(upper circuit)의 ‘인간 이상의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인간들’로 이뤄진 쓰레기 더미 위를 활보하고 있다.

김성용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낙산만평

류연수(애니제움 2)

ROTC! 당신을 위한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Future by ROTC

학군사관(ROTC) 51기·52기 후보생 모집안내

학군사관(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학군사관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업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교육 / 복무기간

- 후보생기간 : 2년(3, 4학년)
- 복무기간 : 입관 후 2년 4개월

지원자격

- 연령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인 남자
- 학군 제51기 : 4학년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매학년 학점이 C학점 이상인자로서, 2011년 3월에 3학년(5년제)의 경우 4학점으로 정상 진학이 가능해야 함
- 학군 제52기(1학년 사전선발)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 기간 : '10. 3. 2 ~ 26(4주) / 인터넷
-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을 방문하여 지원서류 일체 제출

[지원서 접수방법]

- ① 인터넷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 에 접속
- ②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 ③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 ④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 ⑤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 ⑥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 ⑦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 ⑧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 ⑨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 ⑩ 지원서 접수 - 해당지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서 1부(인터넷 출력 → 서부시향 기록 후 제출) ※ 수거기간 및 전산작성 가능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제적 및 말소 포함 각 2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학인용 성적증명서) : 1학년은 불필요
- 필리사탄인명명판 3.5x4.5cm 원모 상판(신) 3매
- 지원서(1), 신원진술서(1) : 직접 부착 후 제출 / 수필(1) : 문인 소지
- 4x5cm 사진(신원진술서) : 직접 부착 후 제출 / 수필(1) : 문인 소지
- 신원진술서(A4용지) 1부 → 홈페이지 download파일 워드작성 또는 수기작성 가능
- 1차 합격 후 재력 / 면접 필기시 제출
- 면접필기 관련 서류 : 면접관에게 제출할 각종 서류
- 자기자신을 최대한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기신첩 해당지는 관련 증명서류 제출 : 면접시작 전까지는 제출해야 유효함
- 원본 + 사본을 제출하면, 학군단에서 원본대조후 원본은 되돌려 줌

사설

꿈을 향해 가는 한성인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지나가는 바람결에서 이제는 제법 봄이 제법 성큼 옆으로 다가왔음이 느껴진다. 올 겨울은 기상 이변이라고 할 만큼 눈이 많고 추웠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추위 외에도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취업난, 지진과 기상 이변 등 우리의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어떻게 이겨냈나 생각해 보면 벅쿠버 올림픽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

쇼트 트랙과 같은 일부 종목은 제외하고는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나라가 동계 올림픽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에 우리 모두는 올림픽 기간 내내 흥분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했다. 이들 중에는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처럼 전 국민의 기대를 받던 선수도 있지만, 스피드 스케이팅의 모태범, 이승훈 선수 등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찬란한 기록을 만들어낸 선수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가 열광한 것은 메달리스트만은 아니었다. 서른 두 살의 나이에 올림픽에 다섯 번째로 도전했던 이규혁 선수, 세계에서 유일하게 봅슬레이, 루지, 스킨레이팅이라는 열매 관련 세 종목에서 모두 올림픽에 출전해 본 강광배 선수에게도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메달이라는 결과를 거두었든 그렇지 못했든, 우리는 이들이 품었던 꿈과 그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알기에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행복해 했다. 이들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거둔 결과는 다르지만 동양인이 지닌 체력적 한계, 경기 지원 시설이나 선수층의 부재 등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인해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에 도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아름다운 이유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시작할 때부터 찬란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보다는 어렵고 힘든 과정만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 이 봄, 겨울을 이겨내고 새순을 피우는 나무들처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한성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언제쯤 학생회에도 봄바람이 불까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학생회 선거 불참률이 어렸다. 지난 총학생회 선거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지만, 투표율 미달로 인문대 학생회 선거를 제외한 총학생회 선거와 사과대, 예대, 공대가 보결선거로 넘어갔다. 심지어 총학생회 선거는 경선, 단선으로 두 차례가 진행되었지만 각 40.25%, 41.64%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투표율을 보이며 부결처리 되었다.

본지가 새학기를 맞아 선거철이 시작되면서 지난 선거를 되돌아 보는 차원에서 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대다수의 학생이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말뿐인 공약, 투명하지 않은 학생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선거투표로 결과로 나온 것이다.

훌륭한 정치를 일컫는 것 중에 '정관의 치'라는 말이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의 시대로 평가 받는 중국 당 태종의 치세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 당 태종은 언제나 신하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를 통하여 국정을 이끌어 갔다고 한다. 정치는 한 나라의 왕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는 총학생회가 몇 명의 학생들을 대표해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번 총학생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총학생장은 '정관의 치'라는 말처럼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잘 귀 기울이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총학생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줘도 학생들의 무관심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다음주엔 총학생선거와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 선거가 교내 곳곳에서 진행될 것이다. 각 학생회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선거에 임했다면 하는 바람이다.



의화청

나에게 내가 바란다

이정숙 교수 (한국어문학부)



가끔은 나 자신이 (나를) 참 웃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어느 대단한 세계적 석학이 한 말--예를 들어 "한국은 이웃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있어서 행운이다" 같은 언급--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말이 라고 반가워 한다. 사실은 그 학자의 말에 공감하는 것일 텐데, 평소엔 우리 민족이 일본을 이기려고 애쓰다 보니 그만큼 빨리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온 만큼, 어떤 때는 내가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 문제이다.

때로는 관중은 작가들 --특히 여성일 때 더 그렇다-- 이 쓴 글을 보고 나와 참 많이 통한다고 느끼면서--이런 것은 얼 마든지 좋다-- 동류의식과 함께 그 분들과 함께 할 기회가 없음을 안타까워 한다.

나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안타까와야 할 일인 것 같으니 문제이다. 한술 더 떠 내가 소설을 쓴다면 그런 관중은 작가들 정도의 수준으로 쓸 것 같은 착각에도 잠시 빠진다. 참고로 대학에서 소설 전공하는--나 같은-- 교수들이 대개는 소설가 지망생이었다가 소설은 쓰지 못하고 결국 좋아하는 소설 공부 하다가 교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살다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대방의 오프로 살 떨리게 --나에게는 떨릴 일이 많다--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유명한 안본 슈낙의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못 지 않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대단한 에세이를 쓸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한다. 이럴 때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리스트가 늘어나는 것을 반가와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타이르기도 한다.

언젠가 신문에서 한 사립대 교수가 평생을 봉직해 온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했다는 기사를 본 날은 나도 월급에서 얼마씩을 더 떼어 발전기금으로 내는 액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며칠 고민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나면 그런 고민 자체가 사라져 있다.

난 왜 이렇게 생각만으로 많은 가능성을 만들었다가 지우는가. 기껏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읽은 글 가운데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글들을 스크랩하거나 복사해서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정도이다. 그것도 이따금 했던 것을 비로소 최근에야 자

주 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대학 신입생과 함께 읽고 싶은 내용도 있고, 친일 인명사건에 대한 정반대의 제형에서 우리나라 편지글도 있다. 이런 글들을 함께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나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선생--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해 본다. 또 이는 가. 이렇게 사소한 일을 실천하다 보면, 생각만으로 그했던 다른 좀더 큰 일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스스로 그렇게 성숙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나에게 내가 바란다.

한 줄 맺 글

새로운 총학생회장에게 바라는 점

총학생회장이 된다고해서 학교의 문제점들을 다 개선한다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총학생회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 김찬미** [2010/03/05 11:10] 재학생들이 잊지 못할 게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지정 2) (의패 2)
- 박진숙** [2010/03/05 12:46] 원하는 수업 다 들을 수 있도록 수강 가능 인원 좀 늘려주세요 (경영 3) (의패 2)
- 임재영** [2010/03/05 13:26] 제가 1학년(몇년전)이었을 때는 학생회장에게 여러 말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았는데, 이번 학생회장님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컴공 2) (의패 2)
- 김진호** [2010/03/05 15:45] 주·야간 차별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산공 4) (의패 2)
- 한용덕** [2010/03/05 22:36] 복수전공 수강신청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몇년째 같은 방식이네요~ (경영 2) (의패 2)
- 김한여울** [2010/03/09 17:27] 소박하게 이를 수 있는 공약을 약속하시고 지키셨으면 합니다. (한국어문 4) (의패 2)
- 서주연** [2010/03/06 17:30] 교양 시간대 늘려주세요 공강이 장난 아닙니다 (의패 2) (의패 2)

'한줄맺글'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35호 당첨자는 이성민(정통 4) 학생입니다.

독자투고

사물함 사용 바르게 합시다!

석장미 (한국어문 3)

지난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총학생회에서 2010학년도 1학기 사물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2009학년도 2학기에 사용했던 사물함을 반납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는 미리 공지한대로 11일에 잠겨있는 사물함을 강제로 열거했는데, 미래 컴퓨터 실습실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물함 안에 있는 물건들을 큰 봉투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의 봉투에는 사물함 한 개에서 나온 물건들만 담더군요. 봉투에는 물건을 꺼낸 사물함 번호인지 아무튼 글자들이 쓰여 있었고, 얼핏 봐도 물건이 담긴 봉투의 양은 상당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미래관에 있는 사물함 뿐 이었는데 학생 복지위원회는 우촌관과 창의관 사물함도 관리하고 있으니 철저한 물건들을 치우느라 꽤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일 저녁에 학생복지위원회가 발표한 사물함 추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42명이 사물함을 중복 신청했고 그 중 23명이 당첨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복지위원회는 사물함을 중복 신청한 학생들을 모두 가려내고 당첨된 사물함은 재추첨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물함을 중복 신청한 학생들은 2학기에 사물함 신청을 할 수 없게 한다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물함 신청 반납도 바르게 하는 한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대 신문에 게재될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한성대학교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불편했다' 등 학내·외 이슈들에 대한 여러분의 주장 혹은 「한성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 등을 4,5매(900자) 분량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는 kmh77@hansung.ac.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원고는 본지 여론면에 게재될과 동시에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성대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성대 신문사 02)760-4186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안내문

작년 여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H1N1)가 3월 전국적인 개학시즌으로 인해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빨리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본교 건강관리실에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므로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를 확실하게 예방한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려우나 예방 접종을 통해 그 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바이러스의 항체가 체내에 형성됨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유사 감기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방 접종을 한 한 경우에 비해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은 경미한 증상만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인 경우 예방 접종을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을 원하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 *접종일시 : 2010년 3월 16일(화) ~ 3월 17일(수), 오전10시~오후4시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대상 : 교직원 및 재학생
- *접종장소 : 건강관리실 (의사 및 간호사님이 문진과 진료 후 접종)
- *접종협조기관 : K.M.I.
- *금기사항 : 1. 발열 중인 자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 상담 필요)
2. 기타 감기, 호흡기계의 질환이 있는 자
3. 계란, 계육 그 외의 닭 유래의 것에 과민증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자
4. 본제의 접종에 의해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5. 접종 전 1년 이내에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 자

※ 추가사항 : 미리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접종일날 오시면 번호표를 나눠주므로 순서대로 접종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건강관리실(구내 4236)으로 전화 주십시오.

사람을 만나다

몽골에서 온 유학생 에네릴(경영 4)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 한국”



새 학기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네릴(Eneeril, 경영 4 학생 역시 열댓 보편 뜻밖한 한국 여대생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몽골의 다르항(Darkhan)이라는 도시에서 우리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교환학생이다.

한국 대학에서의 첫 수업을 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어색하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다. 같은 또래로 보인 학생들이 연필을 주워주며 서로 존대말을 사용했다.

전에는 옷사람에게만 존대말을 하는 줄 알았다. 몽골에선 굳이 몽골이 아니라도 비슷한 또래면 자연스럽게 말을 놓는 게 대부분이라 처음에는 어색했다.”며 한국 대학생들에 대한 첫 인상을 늘어놓았다.

현재 한국의 여대생이지만 동시에 몽골의 대학생이기도 한 그의 눈에는 몽골과 다른 한국 대학의 풍경도 보인다. 그는 “한국에서 교수의 말이 너무 느리게 느껴진다. 몽골에서는 교수님과 학생이 서로를 무시하며 어울리며 자유로운 분위기로 수업을 한다. 수업시간에 교수의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정적이 흐를 때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여자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쉽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여학생들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는 것 같다. 친해지기 어려워 오히려 편하게 지내는 남자친구들이 많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어 과정부터 시작해 학부 편입까지 올 해로 한국에 온 지 3년차지만 고향에 대한 향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3년 동안 몽골에 두 번 갔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왜 여기까지 왔나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바쁜 일상 덕분에 점점 집에 대한 생각을 잊게 된다.”고 말했다.

그가 보는 한국은 모든 것에 열정적이며 역동적인 바쁜 나라다. 그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힘들 때도 있지만 활기찬 사람들과 부딪으며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일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기자수첩

“Dream Society”

덴마크 코펜하겐에 소재한 미래학연구소는 정보사회 이후에는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한다.

드림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적 부가가치가 컨텍스트에 부여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는 꿈과 감성을 파는 곳이 될 것이라는 가설적 견해이다. 머리보다 가슴에 이야기로 호소하여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한 미래상대로 현재의 커피는 원두와 인스턴트커피, 자판기 커피를 접할 때와 스타벅스 커피를 접할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커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스타벅스는 기존의 커피와는 달리 다양한 메뉴와 차별화된 사이즈, 시럽이나 샷 추가 등 기존의 커피문화와는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소위 ‘이름값’이 추가되어 있다.

관련내용의 수업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자도 유년시절 스타벅스에서 한 손에는 노트를 두드리며 한손에 커피를 든 현대성을 부러워 한 적이 있었다. 초록색 로고가 그려진 컵을 들고 다니면서 나도 그러한 여성의 이미지가 다른사람에게 비추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여겨지면 카페가 혼자 오 래있어도 눈치주지 않고 자리값, 분위기값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거나 집중하고 싶을 때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휴대 전화와 SNS를 가루수집만 보더라도 분위기,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가 줄지어 있다. 기자도 가끔 예쁜 카페들을 블로그에서 찾아 방문함으로써 ‘분위기값’을 지불하고 감성적인 만족을 느낄 때가 많다. 치열하고 바쁜 생활에 지친 심신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면서 기운을 되찾는 것이다.

한편 휴대 근처에 기내식을 파는 카페가 있다. 이 카페는 여행이라는 테마를 이야기하면서여행을 꿈꾸는 사람에게 더욱 동기부여를,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감성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문화의 소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대학원 인터뷰

대학원 박사과정 총 원우회장 이종모 원우

“어려운 분들이 삶의 의욕을 찾고 재기할 때 제일 뿌듯”



우리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이종모 원우를 만났다.

그는 현재 대학원 수업과 의정부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등급판정위원, 선거관리위원, 여성요양보호사 교육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층은 자녀들의 생활력에 기대었고 그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여겼다. 하지만 IMF이후 자녀들이 실업자가 되자 자기계발, 취미활동에 주력하는 추세가 늘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재단법인인 노인복지관,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 필요했다”며 그는 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학교 대학원에 대해 “2년만에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이 주말이나 야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

에 대해 “판데믹하고 남은 음식이나 식품 및 판매되지 못한 잉여식품, 유통기한이 다 되어 팔 수 없는 식품 등을 수집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공급망 전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무료급식이나 사찰에서 남겨진 쌀로 도시락을 써서 어려운 분들에게 배달하는 ‘태백도시락’ 복지사업을 해오면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어렵게 살던 분들을 만나면서 무방비 상태로 마주하는 참담한 현실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노년층 인구 중에서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등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응달진 곳에 사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는 “도와드리면서 어려운 분들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재기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과 양성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출생률 저조현상 고착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금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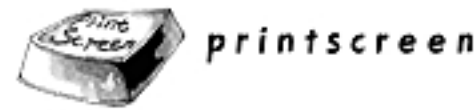
은 줄어들이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의 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노년층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는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실버산업에 관련된 분야의 발전이라”며 “이러한 현실과 달리 유아용품과 어린이를 위한 특수용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노년층들을 위한 용품은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노년층을 위한 편리한 생활용품이 증가할 것이라”고 실버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앞으로의 노인 복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 다행히 장애 인정기요양보험은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다”며 “한국은 전세계에 뒤지지는 않지만 국가로 발달을 하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1998년 의정부시장, 불교조계종을 비롯해 많은 표창을 받았고, 2007년 보건복지부장관 공로표창과 2009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공로표창을 받았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괜찮은 책이 어디있을까”

한 학생이 학부위가 주최한 Geemart에서 책을 찾고 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3월 15일(월요일) ~ 3월 19일(금요일)

Table with columns for Day (일자), Meal (요일), and Food items (구분) with prices. Rows include (3/15) 월, (3/16) 화, (3/17) 수, (3/18) 목, (3/19) 금.

※ 식자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로

1.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로서 2006년 3월 개설되었다.

2. 여자가 과도한 애교를 부릴 때 나오는 말로 일명 '주먹을 부르는 애교'의 줄임말이다.

3. 법인세법상의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금액을 말한다.

4.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N. 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이지만 나중에 카오스 이론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쓰인다.

5. (법률)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6.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취업,졸업생을 일컫는 신조어

7. 관상용 수족관이나 연못에 다 기르는 잉어과의 물고기. 잉어(Cyprinus carpio)를 닮았지만 입가에 촉수가 없다.

8. 흔히 지나친 농담을 하면 '000'을 돈다고 표현한다.

9. 지진회 주연의 영화로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역몽을 다룬 스릴러이다.

정답자 발표

속성업자정 4) 010-XXXX-6927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학과(학과)

이름:

연락처

세 로

1.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제·집단적으로 또는 기만에 의해 징용되어간 여인들

2. 어시스트로 취업준비를 대신하는 학생들을 지칭한다.

3. (불교) 사체를 화장하여 그 유골을 거두는 의식.

4.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과 삶의 타전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방을 일컫는다. 보통 대학교나 기숙학 고등학교 등의 기숙학교 학생들이 이 곳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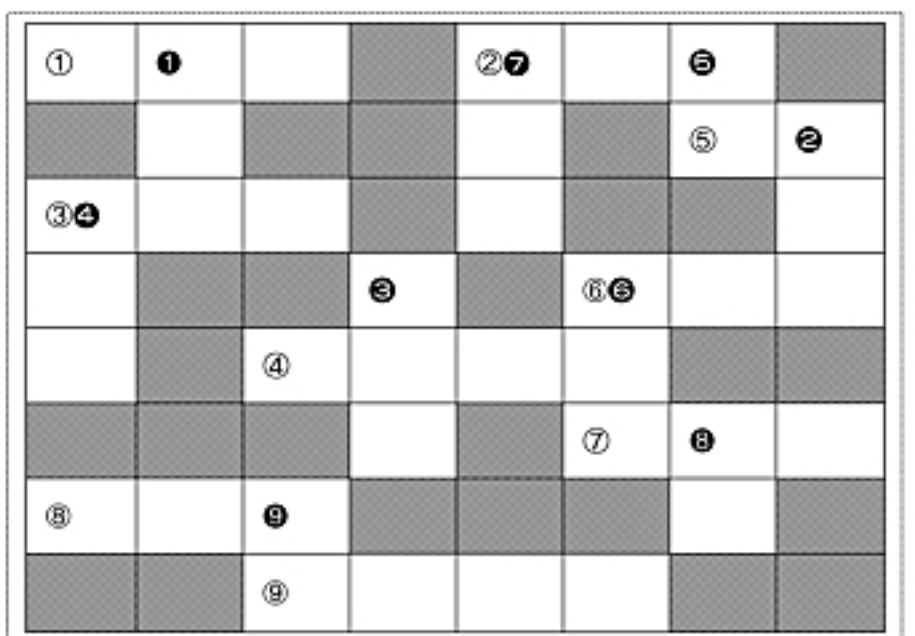
5. [명사]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6. 국가·공공단체가 그 국민 또는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금전부담.

7. 오랫동안 소속되었던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원래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되지 않는 사람이다

8. 무너지고 깨어짐

9.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



학생운동 시대에 따라 달라져

70년대 사회문제에, 2000년대 학생 요구에 중점

대학생들의 사회 운동이 과거 1970년, 1980년대 보다 줄어들고 있다. 대신 지금의 대학생들은 대학 내 문제인 등록금 부담과 복지시설 증진 등을 위해 일하고 있다. 사회 운동에 힘썼던 학생들이 활동 영역을 좁혀 대학 내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귀옥(교양교직학부) 교수는 "1970, 80년대의 학생운동가들은 노동, 빈곤, 분단, 독재 권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2000년 전후한 시기의 학생운동가들은 재단 문제, 성차별 문제, 학생운동권 내부 민주화 문제와 함께 등록금 문제 등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며 시대별 학생운동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1990년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않았고,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시민과 정부 간의 소통 체계가 결핍되어 있었다. 1970년대의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활동이었다. 그런데 독재를 꿈꾸던 박정희가 암살을 당하며 독재 정부가 무너지자 학생들은 새로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 서울 소재 대학 학생들이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일으켜 정권을 잡아 또다시 군사정부가 들어서 국민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참고 있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켰다. 결국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고, 그 일은 광주의 시민들과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키게한 배경이 됐다.

김귀옥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졸자 중 약20%만이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 때문에 대학생하면 '최고 학부'의 엘리트 의식이 있었다."며 "엘리트 의식은 학생 운동가들에게 있어 학생 운동가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었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그들의 운동 목적이 됐다."고

학생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상황과는 다르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졸자가 많아지면서 학생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줄기 시작했다. 김귀옥 교수는 "90년대 중반 이래로 고졸자의 80%가 대학생이 됐다. 때문에 '대학 대중화' 시대의 대학생은 엘리트 의식이 약화되었다. 또 1990년대 이래로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족하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그런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역할은 축소되어 왔고, 현재는 등록금과 학내 민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의제가 협소화되어 있다"고 학생운동

의 변천 과정을 말했다.

덧붙여 1990년대부터는 서양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침투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해 발발한 자유 경쟁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쏟아부리게 만들었다. 때문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거나 자신과 직접 관련된 등록금 문제 등에만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김귀옥 교수는 "각 시대에 맞게 학생 운동은 성장해왔고, 한국 사회와 학생운동의 역할을 때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생운동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비판적·성찰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지식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또한 대학의 객관적인 조건과 미래의 문제를 대학생 개인의 문제와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이런 문제를 감당할 만한 학생운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술부

소설영재 그곳에 그는 없었다. (1)

현수는 이번 육 개월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곳 풍납 2동 주민센터의 책상과 마주하고 있다. 이곳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인터넷으로 증권가를 누비는 김 계장도, 까다롭다고 소문난 복지담당 서화영 씨도 그대로였다.

"어머, 어른이 다 됐네. 현수 맞은 거지?" 연희가 반갑게 손을 내밀자 현수는 어색한 웃음을 보이며 짧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런가요. 누나도 그대로네요."
"어머, 애 녀석은…… 칭찬은 관두고 설명이나 들어. 일은 예전하고 비슷해. 주민등록증 찾으러 오라고 전화해서 확인만 받아 두면 돼. 찾으러 오면 여기에서 도장 잘 받아 놓고 어때, 달라진 거 없지?"

현수는 연희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신여 장의 주민등록증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다. 그때마다 지푸란 웃음이 나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사진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해서인지 다들 어색한 표정에 초점 또한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에, 할 말 한지? 네 엄마가 워낙 잘 챙겨달라고 부탁해서. 그리고 누나도 그렇고……"

연희는 현수의 얼굴이 굳어지자 이내 정색을 하고 짧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경쾌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현 봉투를 내밀었다.

"연애 편지가봐, 전에 일하던 녀석이 주는데. 너 거 맞지?"

"글쎄요……"

현수는 연희가 내미는 사각봉투를 받아 들었다. 윤혜선이라는 글자가 봉투 아래쪽에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현수는 대중 봉투를 앞뒤로 살펴보다가, 연희가 제 자리로 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봉투의 입구를 열어 보았다.

많은 믿을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저의 사망 방식이 한없이 비뚤어져 보여도 말입니다.

돈은 제 성의입니다. 말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곳엔 그가 없었으니까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부락이 담겨 있는 편지였다. 현수는 그때서야 삼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려는 전화를 했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오늘처럼 여러 개의 주민등록증을 챙기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주민등록증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었다. 그날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이른 아침이 거리에 낮게 내려 앉은 오후였다.

병철이 녀석이 언제 왔는지, 어깨 너머로 한 손을 붙들 내밀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야, 이것 봐라…… 정말 똑같은데 정말 똑같아. 혹시 너 아니냐?"

현수는 옆눈으로 슬쩍 주민등록증을 보았다. 왓……, 짝

은 의마디가 현수의 입에서 푹 하고 나왔다. 좀 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니, 정말 자신의 얼굴이 주민등록증에 그대로 있었다. 현수의 푹 높은 목소리와 놀란 표정에 김계장과 서화영 씨, 연희까지 몰려와 주민등록증을 서로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정말 비슷하네 라는 탄성의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수가 보기에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비슷한 사진이었다. 매년 비슷한 얼굴 사진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닮은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현수는 주변 사람들의 재촉으로 제일 먼저 그 주민등록증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68년생, 이름은 박형진이었다. 핸드폰이 계속 연결되지 않아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었다. 현수는 조바심 내듯 다시 박형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너 번 정도 벨 소리가 울리는 것 같더니, 한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천천히 들려 왔다.

"자……, 여기 풍납 2동 주민센터인데요. 박형진 씨 계시냐?"

"……아, 네. 무슨 일로……"

"박형진 씨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신청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연락을 드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고 계신가요?"

잠시 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현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반복적으로 머리를 긁어 냈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곧 가죠."

그때서야 겨우 저 쪽에서는 대답을 해 왔다.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 눈앞에서 보이는 듯도 했다.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박형진이라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박형진의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수요일 오후는 늘 나른한 졸음이 물려오는 시간이었다. 현수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점점 희미해지는 출입구를 보고 있었고, 시간은 오후 두 시를 넘어 세 시로 박 숫자를 바꾸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한 사내가 현수의 자리로 걸어왔다. 경직된 얼굴이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현수는 사내가 책상을 푹 두드리자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무슨 일로……"

현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나른한 졸음이 남아 있었다.

"주,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왔습니다. ……박형진.이요. 아니? 이만……"

사내는 몇 마디인가를 할 듯 입을 움직이더니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현수의 얼굴을 훑어지듯 쳐다보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가만……, 박형진이라, 어디있지……"

왓, 박형진…… 그리고 보니 자신과 닮은 주민등록증 사진 속 사람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온 사내는 박형진이 아니었다.

"저기, 본인이 아니면 찾아갈 수 없는데요."

현수는 감렬한 사내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긴 했지만 목소리는 어디서부터인가 갈라져 나왔다. 게다가 손놀림까지도 여간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

(다음 회에 계속)

1976 ~ 2010 민족의 위대한 거지말

① 중국 '동북공정'

백준중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사무국장

동북공정은 중국이(정확하게는 중국을 이끌어가는 중국 공산당 당 지도부) 중화문명의 유구함과 위대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중화민국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2002년 시작되어 2006년 까지 진행된 이 동북공정의 원래 명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으로 사업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동북 3개성 즉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 전체에 대하여 연구하는 작업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고조선과 그이전의 역사왜곡이 핵심이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의 유구성

과 자국민의 우수성 그리고 민족문화의 위대성을 역사를 통하여 강조하고 그 것을 통하여 민족의 결속을 도모하려한다.

하지만 자국 역사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이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며 중국에는 인류의 죄인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역사정리 작업에는 바로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동북공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의 상고사(上古史)가 한민족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결코 고구려 역사왜곡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군조선(소위 고조선이라고 말한다).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이 동북공정의 최종

종착점은 우리의 상고시대의 역사 왜곡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부리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이 역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소위 中華史觀(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국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중심국이라는 역사관에 의한 국가경영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거의 모든 문화와 역사의 뿌리는 우리 한민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많이 있다. 심지어는 중국의 양심적인 역사학자(서량지 등)는 한민족이 그들의 역사의 뿌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많은 중국 역사서에는 중국의 역사적,문화적 시원은 동이족(夷族)이라고 써여 있다. 동이족은 중국이 우리 민족을 칭하는 말이다.

중국은 漢族을 비롯하여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다. 몽고족, 티벳족, 묘족, 위그르족,

조선족, 장족 등 수많은 소수민족이 중국영토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중국과 수교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객이 중국을 통하여 백두산관광을 하는 외중에 조선족의 정체성과 우리국민의 만주와 백두산에 대한 발언 등에 의하여 자국민은 중국은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하고 중앙정부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요구 사진 차단 등 목적으로 후진타오의 직접지시에 의한 소위 '동북공정'을 추진한다.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상 중국은 후진타오가 지시를 철회하기 전에는 역사왜곡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여 이미 압록강변에 20만 군대를 포진해 놓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목표로 거대 패권국가로의 야심찬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전자잡지 220여종 열람 서비스 개시



본 서비스는 잡지의 대출 및 소장권수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한성대학교 구성원은 교내·외에서 시간 제약없이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국내 잡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소개
 - 국내 전자잡지 열람 서비스로서 시사/경제, 컴퓨터/인터넷, 산업/기술/과학, 문화/예술/종교, 교육/외국어/문학, 교양/생활/패션, 취미/오락/여행/스포츠 등의 약 220여종 50만건의 기사 제공
- 서비스 특징
 - 다양한 잡지 제공 : 인쇄형태로 구독하기 어려운 분야의 다양한 잡지까지도 제공 (현재 약 220여종 50만건의 기사)
 - 통권, 기사별, 본문내용별 검색 가능
 - 고품상도 이미지 제공
 - 과월호 제공 : 잡지마다 제공기간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2005년도 이후 자료는 모두 포함됨.
 - 신간자료의 빠른 업데이트
- 출력 : 현재는 열람 및 화면 캡처 형태의 출력만 가능
출력 서비스 프로그램은 개발중이므로 개발 완료시 제공지 할 예정임.
- 접속 방법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교내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E-Resource)E-Journal)제공업체별 리스트)모아진 [전자잡지]
 - 교외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전자정보원)교외접속 참조
- 문의
 - 학술정보관 학술정보팀 연속간행물실(담당: 정미영, 구내전화 4284)

우리학교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우숨소' 4인의 이야기

편집자주

학교를 다니며 자주 접하지만 신경쓰지 못한 분들이 있다. 바로 우리학교의 숨은 일꾼(우숨소)들이다. 그래서 이번 신문에 우숨소의 네 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우리학교 환경을 15년 동안 지켜 온 이인영 씨를 만났다.

Q: 낙산관을 이용하는 학생 중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

A: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실기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치유된 것 같아 뿌듯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들을 마주칠 때 먼저 기억해주고 반갑게 대해줄 때 가장 기뻐했다.

Q: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나?

A: 탐구관이나 창의관처럼 광범위한 곳에서 일한다면 그저 스쳐지나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무용과 건물에서만 일하다 보니 늘 마주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한 식구가 된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든다. 학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Q: 학생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몇몇 학생들이 질서를 벗어난다.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기도 한다.

우리학교 학생식당을 7년간 지켜온 식당 지킴이 신현자 씨를 만났다.

Q: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A: 일하다 보면 고맙다며 별거 아닌데 음료수를 들고 성의표시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기억에 남는다. 또 졸업 후 사회인이 되어 학교에 찾아와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식같은 생각이 든다.

Q: 학생들에게 아쉬움을 느낀 순간은?

A: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이나 정수기에 손 씻는 학생들을 보면 보기 좋지는 않다. 하지만 다들 아들, 딸들과 같아 모나게 미운 그런 학생은 없다.

Q: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A: 대동제와 같은 축제 때 학생들이 여는 주점에 들어가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한번은 강의실에서 공부할 적도 있다. 컨텐츠학과에서 실시한 인터넷 검색 실습대상이 되어 실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진땀 뻘 기억이 난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학생식당의 음식은 맛있고 저렴하면서 음식도 다양하다. 또 리필이 안 돼는 음식도 리필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구내식당을 자주 찾아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우리학교의 버스 기사란 명함을 단 지 11년 이 된 정의섭씨, 그를 만나보자

Q: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

A: 오전 8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첫 차를 들고 오후에는 12시에서 1시까지, 5시부터 7시까지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이외의 시간에는 차의 세차 및 수리 그리고 직원과 학생들의 행사 차량 운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Q: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A: 4년 동안 학생들을 태워주며 친하게 지내다보니 졸업 후에도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학생과 감사하다면 서 넥타이, 손수건 등을 주며 이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 또 버스에서 가장 늦게 내리며 음료수를 주고 가는 학생도 기억난다.

Q: 일을 하며 힘든 순간은?

A: 다른 직원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건 힘들지 않다. 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마음에 안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이 힘들다.

Q: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서로 인사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새내기들은 서먹서먹해 인사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힘들게 일을 해도 학생들이 인사를 해주면 힘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일하게 된다.

학술정보관에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경비원 남승진 씨를 만났다.

Q: 어떤 일을 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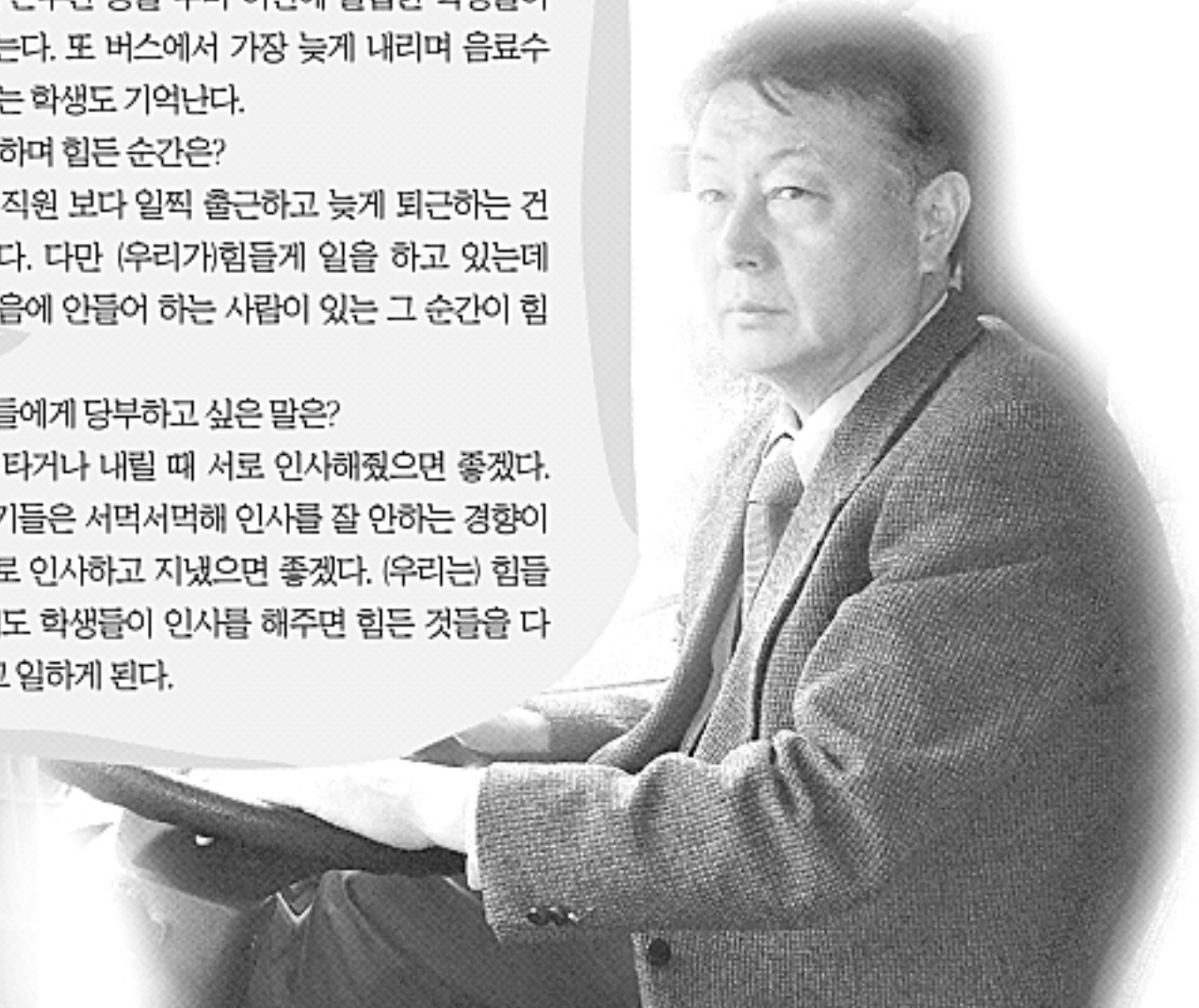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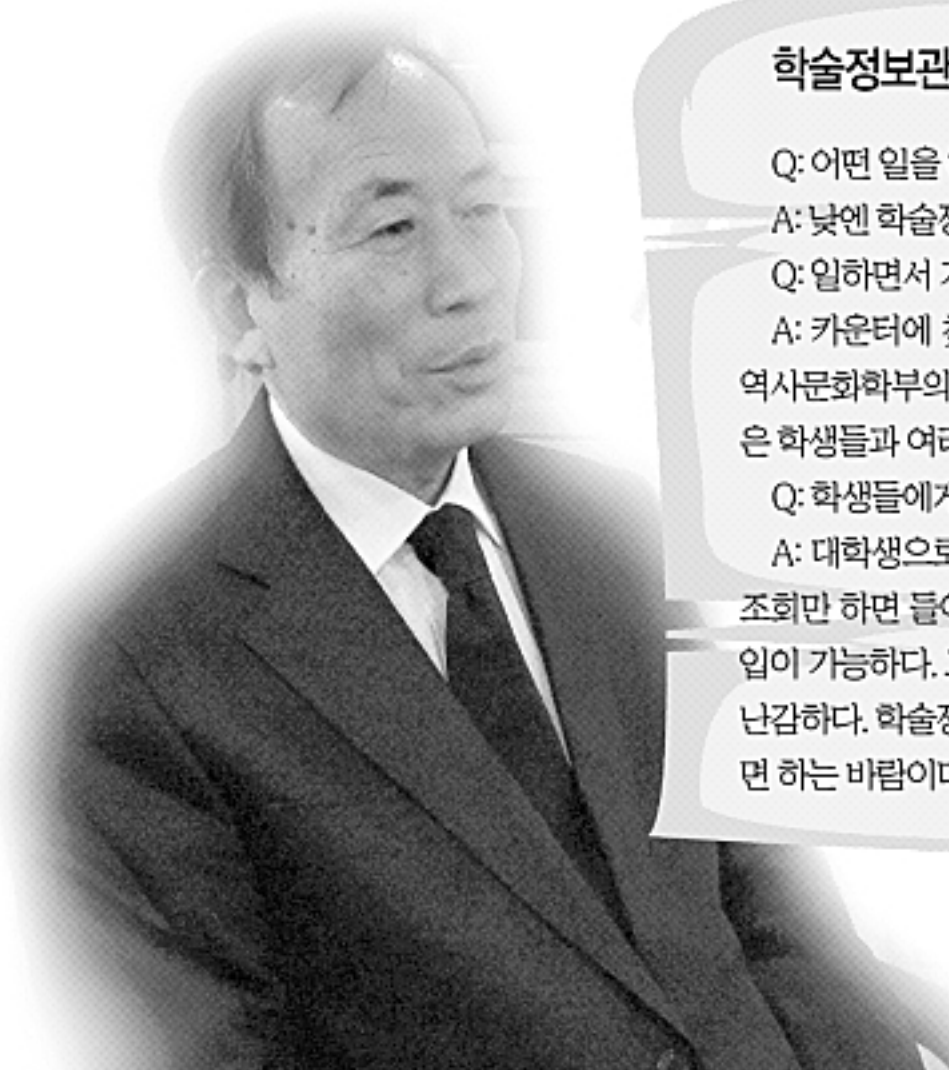
A: 낮엔 학술정보관 밤엔 창의관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Q: 일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는?

A: 카운터에 찾아오는 학생들과 대화할 때가 아닐까. 작년에는 당나라 임포가 쓴 한시 한 편의 해석이 공금해 역사문화학부의 한 학생에게 물었는데 음과 운, 뜻풀이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고맙고 기뻐한 적이 있다. 자식같은 학생들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대화 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다.

Q: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대학생으로서 기초적인 질서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학생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 카운터에서 학번 조회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대학 학생과 함께 온 경우에도 카운터에 설명하면 적당한 조치 후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굳이 친구의 학생증을 빌려와서 걸리는 학생도 있고 게이트를 훌쩍 타 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하다. 학술정보관은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다. 그러니 질서를 잘 지켜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과 구성 능력 향상
3.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학술적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재학생은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0년 3월 15일(월) ~ 2010년 6월 11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문서, 논문, 서평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글의 맥락 파악,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글쓰기 태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3.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담 시간은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 재즈페스티벌 Backstage

“열정으로 가득찬 학생들이 기성세대에게 내미는 도전장”

무대에 오르는 공연이 언제나 경외의 대상인 반면 백스테이지는 흡사 전쟁터처럼 정신 없이 돌아간다. 수많은 대학생 기획팀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담긴 백스테이지 현장을 찾았다.

지난 2월 5,6일 양일간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전국재즈페스티벌은 2008년부터 이 행사를 기획해 온 이명재 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기획팀장을 공개모집하여 총 3차에 걸쳐 7명의 대학생으로 꾸려지게 되었다. 그 후 이명재 씨는 직접 만든 기획안을 들고 각 회사를 돌아다니며 후원을 이끌어낸 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과 11월에 스텝과 디자이너를 공개모집 한 결과 60명의 기획단, 60명의 서포터즈, 20개 대학에서 온 150명의 아티스트 총 27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즈페스티벌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있다.

총 기획자 이명재 씨는 이번 공연에 대해 “재즈음악은 대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교류의 장도 부족하다. 재즈음악의 매력은 전혀 모르는 연주자들이 만나더라도 눈빛으로 이야기 하면서 감성적인 교류로 이어져 충분히 연주가 가능한 데 있다”며 기획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기업들을 돌아다니는 것에 비해 80%가 무시와 거절의

뜻을 내비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토로했다. 그리고 “대학생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드가 높고 이끄는 대로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음을 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기획자의 고충을 말했다.

“무엇에 미쳐본적 있나요?”



▲페스티벌에 참가한 아티스트들이 진지하게 리허설에 임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무대 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기획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그는 비결로 끈기, 성실성, 예의, 싸가지 등을 꼽는다. 기획안을 가지고 기업에 돌아갈 때 그는 공연에 대한 열정을 기업 측에 잘 설명하고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이러한 공연을 기획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 한다. “2006년 건국대학교 공연에서 메인스피커의 고장으로 관객들

특히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기획하면서 준비과정의 중요한 것을 몸소 느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만큼 제자리에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100%실력을 발휘하려면 120%를 준비해야한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단순한 꿈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을 생

생하게 느꼈다”며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대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만큼 리허설의 숨막히는 긴장감에서 그 열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명재씨는 “뭐 하나에 미쳐본 적 있으신가요?”라며 묻는다. 그는 “25세 이전까지 뭐 하나에 미쳐보지 않는다면 그 이후엔 현실에 시달려 그러한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춘일 때는 공부든 어떤 것 하나에 미쳐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한 한국 항공대학교 재즈음악동아리 아티스트 이동섭 씨는 공연 전 “사람들이 많아도 공연에는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그저 무대를, 음악을 즐기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리고 “여러 공연을 준비하다보면 많은 헤프닝이 일어난다. 운현궁의 거리 공연 당시 병상시의 거리 공연과 같이 재즈곡으로 준비했지만 주 관객이 어르신들이라서 호응을 이끌어내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또 재즈 정기공연 때 공연이 끝나고 바지예이러 열정적인 관객들의 반응에 앵콜곡을 연주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명과 무대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되어 어둠속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 순간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훗날 되돌아보면 모두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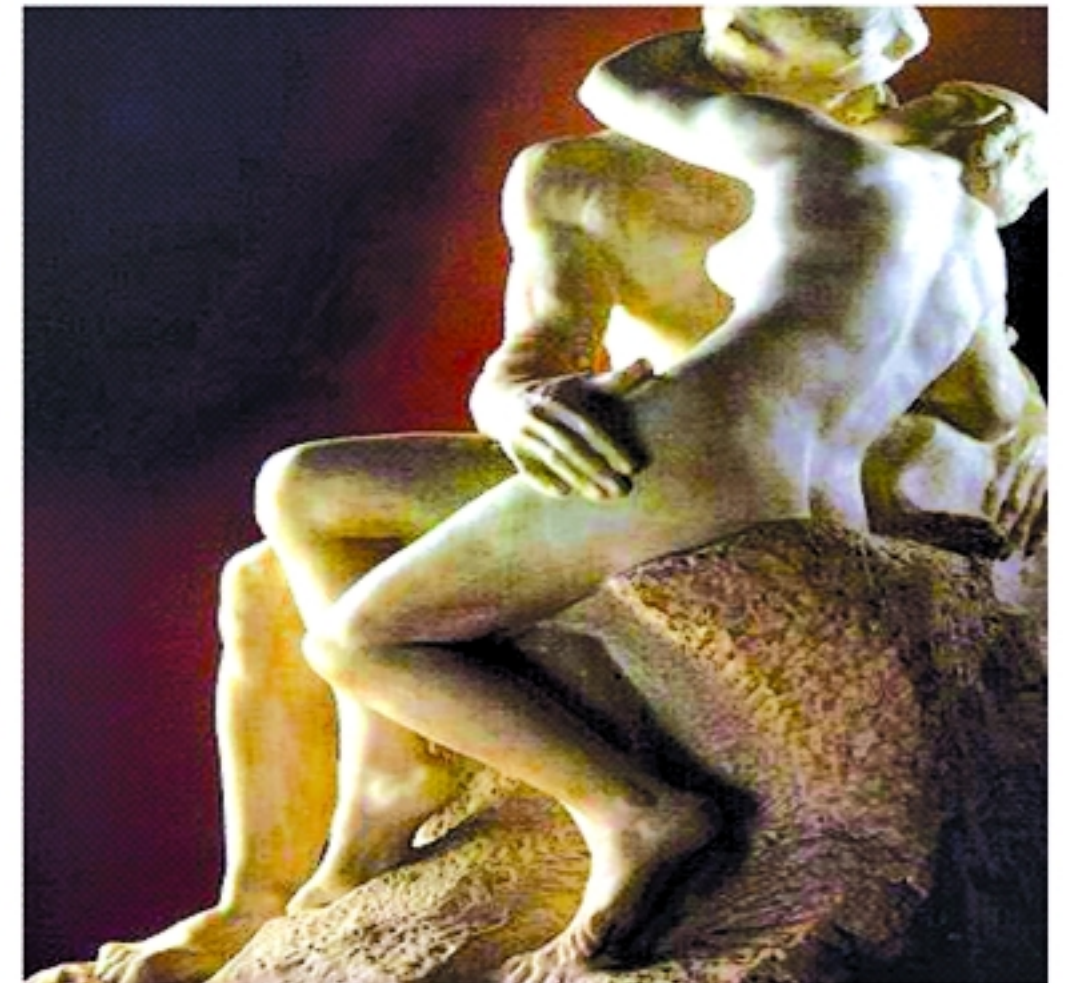
이예진기자 odory11@hansung.ac.kr



영화 읽어주는 여자

“이루어질 수 없기에 더욱 애절한 입맞춤”

로맹 <입맞춤>



로맹의 1886년작 <입맞춤>은 그의 작품들 중 가장 오랜 기간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 동시에 그의 예술 중에서 가장 비재현적인 작품일 것이다. 두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의 감정을 재현한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들이다. 젊고 잘 생긴 시동생 파올로에게 반한 형수 프란체스카의 불륜 이야기로, 서로를 향한 애절한 욕망과 절제하고자 인간 힘을 쓰는 애뜻한 키스, 그리고 잔인한 운명의 경계를 다룬 작품이다. 어느날 파올로와 프란체스카가 함께 궁정 연애담을 읽던 중 이 둘은 자연스럽게 여러 번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프란체스카는 곁에 있던 파올로의 팔짱을 잡으려 키스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본 프란체스카의 남편 지안치오르는 컷 키스를 하는 그들을 질러 죽이고 말았다. 이 금지된 사랑과 그것이 초래한 영원한 천벌은 앵그르와 들라크루아 등 19세기 미술가들이 가장 선호하던 주제 중 하나였다.

사실 이 군상에서 파올로는 프란체스카의 몸을 두 손으로 잡고 있지 않다. 그는 오히려 저항하는 듯 보이고, 주도권을 쥔 것은 젊은 여자이다. 이 작품의 또 다른 관련 포인트는 이 작품을 만들 당시 로맹은 젊고 재능 있는 제자이자 여류 조각가인 까미유 끌로델이라는 여인과 열렬한 사랑에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까미유는 사랑 안에 자신을 모두 내어주고 자신의 예술을 모두 녹여

버린 여인이었지만, 로맹 곁에는 언제나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는 희생하는 부인 로즈 비레가 있었다. 서로 사랑하지만 항상 거리를 두는 로맹에 대해 까미유 끌로델은 점차 불만을 느꼈고, 자아가 강한 그녀는 결국 로맹을 떠나게 된다.

그녀는 로맹의 제자로 오기 전에 이미 조각가로서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스승 로맹의 그늘 아래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이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녀의 재능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반면, 까미유가 떠난 이후에도 로맹은 영광 속에 예술가로서 정점에 이르러 갔다. 자신은 지워져버리고 세상에는 오직 그 남자만 남아있었던 것이다. 결국 로맹에 대한 감정을 피해당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본 프란체스카의 남편 지안치오르는 컷 키스를 하는 그들을 질러 죽이고 말았다. 이 금지된 사랑과 그것이 초래한 영원한 천벌은 앵그르와 들라크루아 등 19세기 미술가들이 가장 선호하던 주제 중 하나였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로맹의 <입맞춤>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외설적인 작품으로 몰려 벌에서 특별카드를 지닌 사람에 한해서만 공개되었다고 한다. 광기와 불안 속에 서로를 영유하려는 갈망이 담겨져 있는 이 작품은 세대를 초월해 대중들의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되었으며, 주조공 버트 베디엔스가 1898년부터 10년간 만든 키스의 복제 수는 놀랍게도 269점이나 된다고 한다.

조주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취(醉)하는 문화가 아닌 즐기는(樂) 문화로”

막걸리는 중장년층의 어린시절, 손님이 오셨을 때 술을 받아오면서 행어나 흘릴까봐 조금씩 몰래 마시던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아버지의 술’로 인식되고 있던 막걸리가 지금 젊은 층은 물론 외국인의 입맛까지 확고해 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막걸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기존의 막걸리를 생각하면 초록색 병에 있는 담담한 막걸리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요즘은 예쁜 색깔과 독특한 디자인을 뒤집어 쓴 막걸리를 볼 수 있다.

막걸리의 변신은 칵테일 막걸리, 서브막걸리, 막걸리 아이스크림을 탄생시키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막걸리장갑이 개성되는 등 호텔에서의 막걸리의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막걸리의 이미지가 ‘고루한 것’에서 ‘젊음’으로 바뀌고 있는 단적인 예로 요즘 젊은 층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지붕키의 황정음이

국순당 막걸리CF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로의 한 막걸리업체 관계자는 “주 연령층이 훨씬 다양해졌다. 70%이상의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주문하는 등 막걸리 붐을 몸소 느낀다”며 “사람들의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다. 취하려고 마시는 문화에서 즐기면서

“막걸리의 변신은 무죄”

마시는 문화로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8도로 저도수와 저칼로리를 자랑한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해 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일본에서 막걸리는 ‘피부미용’에 좋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술’로 알려져 지난해 일본에 수출된 막걸리는 2008년 대비 26%나 늘어났다. 대학생 노여욱(인하대)씨는 “평소 막걸리

를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마실 땐 많이 마시게 된다”며 “막걸리는 술을 마신 다음날 소주보다 숙취가 덜하다. 개인적으로 외국술보다 우리 품에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막걸리열풍으로 인해 농림부에서도 막걸리를 대폭 지지하고 있다.

막걸리 표준 잔 디자인 공모전으로 오는 4월부터는 막걸리 표준 잔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막걸리는 지난해 국내는 물론 일본 등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국내 소비량은 15만8309㎏으로 전년대비 38% 늘었고, 수출량 역시 7405으로 전년대비 35%나 증가했다. 이러한 막걸리 붐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예진기자 odory11@hansung.ac.kr



이예진 기자의



토머스 핀천 - 제 49호 품목의 경매

삶의 주변부에서 들리는 소리없는 외침



주인공 에디파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주부이다. 어느 날 부동산 재벌이던 옛 애인 피어스의 유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는 한통의 편지를 받으며 시작되는 이 소설은 에디파가 유산관리를 위해 그의 고향인 캘리포니아 샌나르시소로 가게 되면서 전개된다.

그의 수많은 유산을 정리하고 경매를 벌이는 과정을 담당하게 된 그녀는 샌나르시소로가 변호사와 함께 술집을 가게되면서 이상한 지하 우편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사건들은 공식적인 우편제도만 사용하도록 교육받아 온 에디파에게 지배문화의 교육과 제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불만을 제기한다. 피어스는 평소 우표 수집하기를 좋아해 유산 처리 과정에서 진품과 구하기 희귀한 우표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세상에서 한번도 통용된 적이 없는 우표였다. 그녀는 샌나르시소에서 ‘전령의 비극’이라는 연극을 보게된다. 이로 인해 ‘트리스테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어둠의 세계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된다. 그들은 ‘W.A.S.T.E (We Await Silent Tristero's Empire - 우리는 조용한 트리스테로 제국을 기다린다)’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트리스테로는 술

품과 비밀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이 작품 내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우편제도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은밀한 우편제도를 통해 교류하며 공식적인 우표가 아닌 위조우표를 사용한다. 이러한 트리스테로의 상징은 악습이 가 담긴 우편나팔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외침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외침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들은 지배문화의 이면에서 또 다른 저항을 하는 소외계층, 피자배 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트리스테로의 정체를 추적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려 혼자 남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된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경매가 다가오면서 ‘전령의 비극’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교수를 찾아 버틀러 대학으로 가게 된다. 대학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수업을 경험하면서 세뇌,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닫힌 세계관 속에서 살아 온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농아들의 무도회에 참가하면서 내적 음악에 맞추어 즐겁게

춤을 추는 농아들을 보고 더욱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에디파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주변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매를 앞둔 어느 날 에디파는 트리스테로 집단이 경매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트리스테로의 존재를 실제로 마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경매를 기다린다. 그녀는 “이제 경매가 시작 시간입니다”라는 안내인의 멘트를 들으며 제 49호 품목을 기다린다. 라는 내용으로 완결을 맺는다. 이로 인해 트리스테로의 존재의 유무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완결은 에디파 뿐 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주변부를 인식하고 그들의 소리없는 외침을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이예진기자 odory11@hansung.ac.kr



사진이야기



지금은 24살이 된 06학번 제 동기들입니다. 우리도 따뜻한 햇살 내리쬐는 교정에서 편지 써준 신임생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신입생들을 바라보는 선배가 되었네요.

육형빈 (의패06)